

2024년 개정판을 내면서

학생들에게 소득세실무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하고자 한 것이 저술의 목적이었으며, 책의 페이지 수를 제한하다 보니 요약식 교재가 될 우려가 있어 부연설명이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 책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실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 세법지식을 정리하고 각종 신고양식을 첨부하여 실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NCS가 요구하는 능력단위요소별 수행준거에 따라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도록 학습모듈을 참고하여 저술하였다. 이 책이 주 대상으로 하는 NCS 능력단위는 「원천징수」이며, 부차적인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이다.

본 교재의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부록에 첨부한 NCS의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능력 단위 명세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NCS 능력단위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고급학년 과정으로 나누어 교수·학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학년 과정에서는 제2편 제2장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3장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세무조정, 제5장의 연금소득, 제10장의 추계사업소득 계산, 제4편의 양도소득세 등은 소득세법의 전반적인 이해와 수험목적으로 간단한 개념소개와 이해로 충분하고, 자세한 내용과 세무사 기출문제 등 고급문제 풀이는 추후 고학년 과정에서 지도할 수 있다.

2023년말 소득세법개정 내용은 큰 맥락에서의 개정은 없었으며, 투자·고용 촉진 정책,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정책,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 정책 등에서 일몰기한의 연장이나 대상·한도금액 확대 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 밖에도 소득세법 관련 개정내용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있으므로, 실무적용시에는 반드시 세법전(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참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소득세실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세무서식을 작성해 보아 단편지식이 아닌 실무적용가능한 종합지식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장의 앞부분에 제시한 학습목표를 통해 미리 생각해보도록 하여 몰입교육과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금부터 마음가짐을 다지고 꾸준히 도전하면, 딱딱한 세법이 아닌 재미있고 실용성 있는 세법으로 독자에게 다가올 것이다.

2024년 2월 저자 씀